



동북아 시대의 중심도시 인천

한반도의 한가운데 위치한 인천은 역사적으로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정학적으로도 동북아의 중심도시로서 향후 우리 나라가 세계로 뻗어 나갈 요충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해양 도시이다.

1. 인천의 산업구조는?

인천은 산업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많은 분야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차·제철공장과 같은 큰 제조업체에서부터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금융기관, 대규모의 유통시설 등 다양한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처럼 인천은 도시적인 산업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반면 곡식이나 채소를 재배하는 농업과 어업도 발달되어 있다. 하지만 인천의 경제는 산업구조면에 있어서 농업이나 어업과 같은 1차산업이나 제조업 같은 2차산업에 비해 서비스업 등의 3차산업이 67.1%를 차지하고 있다. 2차산업의 비중도 32.1%로 높다. 또한 인천은 임해공업도시로서 입지조건이 유리해 수출산업 4·5·6공단 및 남동공단 등 대규모 공업단지를 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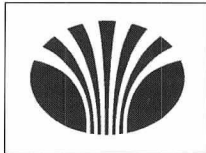
2001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인천지역 2001년 12월 총 사업체수는 147,081개에 이르고, 종사자수는 699,233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00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는 3.3%, 종사자수는 4.9% 증가한 수치로, 동북아 시대를 맞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산업경제가 발달된 반면에 산업재해에는 그 만큼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인천지역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최근 경인지방노동청은 지난 2000년 산업재해 다발지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산재 다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옐로 카드제'를 실시하는 등 산재발생저감을 위해 적극나서고 있다. 그러나 경인일보(2003. 6. 9)에 의하면 인천지역의 경우 올 1/4분기 현재 관내 사업장 근로자 47만5천명 중 1,608

명이 재해를 입어 36명이 사망하는 등 0.34%의 재해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36%가 증가한 것이며, 전국평균 0.2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인천을 대표하는 기업을 찾아서



GMS를 통해 선진안전을 전개하는 GM DEAWOO 새로운 회사, 새로운 자동차로 거듭 태어난 대우자동차는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우뚝 서기 위한 기지개를 펴고 있다.

인천을 대표하는 기업인 대우인천자동차(주)에서는 선진 안전기법을 전개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GM의 전세계 60여개의 자동차 생산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GMS(GM MANUFACTURING SYSTEM)라는 통일된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GMS는 안전, 사람, 품질, 생산성 등 33개의 구성요소 중 안전보건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를 전 작업장에 GMS를 알려, 인지시키는 해로 설정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적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밖에 대우인천자동차에서는 공장의 재해 현황을 전종업원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카렌다식의 “무재해녹십자표”를 설치하여 안전의식 고취에 힘쓰고 있으며, 부서별 안전게시판 활용, 관리감독자들의 주기적인 안전순찰제도운영, 고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자율안전점검 등 20여가지의 안전관리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 중 자율안전점검은 매월 500여건 이상의 잠재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안전관리 활동이다.

이처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세계로 향하는 대우 인천자동차에는 김재수 차장이 있다. 안전업무를 수행한지는 얼마 되지 않으나 무재해 사업장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김재수 차장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기업 경영에 있어 근로자의 건강,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최우선 과제이며, 기본적인 의무이다.”라고 말한다. 사람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 대우인천자동차(주) 김재수 차장

우리 나라는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며, 인력 자원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설명하는 김재수 차장은 이러한 인력자원인 사람을 중요시하는 문화의 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지금은 세계가 변하고 있고, 우리도 변해야만

하는 21세기 기업 경영에서는 안전의 비중은 커질 수 밖에 없으며, 기업의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예전의 소외시되던 사회적 풍토에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인 개인도 자기개발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을 당부한다.

끝으로 대우인천자동차(주)는 GMS도입의 초기단계로 내년에는 정착의 해로 명실공히 선진기업으로 재도약할 것이며, 안전경영체제 도입과 안전시스템 인증을 통한 No.1이 되는 공장이 되겠다는 각오가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INI STEEL

국내 최초의 철강업체로 앞서가는 안전활동 전개

INI스틸은 지난 2001년 8월에 사명을 변경하고, 세계적인 철강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H-Beam, 철근 등 건축용 자재 생산에서부터 철도 레일, 스테인레스 특수강까지 전략적 사업계획을 통해 사업의 다각화를 이루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INI스틸은 지역 발전을 위해 도로청소에서부터, 각종 문화행사의 주관, 인천의 숙원사업을 이룩하는데까지 주저하지 않고, 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기업이다.

이러한 INI스틸에 시민의 안전과 복리후생에 이르기까지 INI스틸의 안전을 총지휘하는 환경안전팀의 이윤묵 과장을 찾았다.

92년에 INI스틸에서 안전업무를 시작한 이윤묵 과장은 철강업에서의 안전 배태량이다. 지속적으로 전개한 안전정책으로 입사당시 연간 100여건 이르렀던 안전사고가 지난해는 15건으로 크게 줄이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여기에는 낡은 설비의 교체, 자동화 등도 큰 역할을 하였지만 입사당시부터 자율안전정착을 외치며 현장에 적용·정착시킨 결과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지금 INI스틸에서는 자율안전관리지도요원을 선발하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사전안전작업계획서이다. 모든 작업전에 해당 작업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이는 반드시 현장의 자율안전관리지도요원이 확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밖에 특이한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담당자든, 해당부서에 일말의 제재 조치를 가하는 것이 일반화된 정책이다. 그러나 이 곳 INI스틸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제재조치를 가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이므로, 이에 대해 얼마나 신속하게 재발방



▲ INI STEEL 이윤묵 과장

안전기행

역

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는나에 따라 제재조치를 가한다. 사후관리가 아닌 예방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철저한 예방관리를 하고 있는 IN스틸이 세계에서 우뚝선 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OSHAS 18001도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길 바라며, 진정한 선진기업이 되길 아울러 기원한다.

3. 인천의 재난방지 시스템

위험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구난응급체계가 완비된 도시, 종합적인 방재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누구라도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시,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한 삶과 안정적인 생활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위험 오염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재난관리계획 수립, 사전예방적인 방재대책의 전환, 개별적 재난관리방식에서 통합 재난관리방식으로 전환, 재난 종합통신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총괄방재 체제 구축 및 가동, 방재정보시스템 구축을 중점사항으로 2020년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방재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인천이다.

안전한 방재도시로 만들기 위한 초기단계로 현재 시행하는 119안전신고 센터 운영이 바로 그것이다.

119안전신고센터는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인터넷,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보강하고, 이를 일괄 접수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5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119안전신고센터는 119신고의 사각(死角)을 해소하고, 안전분야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한다는 목표아래 담당 부서별로 따로 접수하던 안전 관련 제보를 일원화된 인터넷 창구를 통하여 접수함과 동시에,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에서 직접 접수하여 인천시 소방본부를 통해 조치하게 된다. 또한, 기존 전화신고 119와 더불어, 신고용 인터넷주소를 www.119go.kr로, 팩스번호는 1544-9119로 하는 등 신고경로에 '119' 숫자 이미지를 도입하여 시민이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4.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 활동

최근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천지회에서는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하여 “작업성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대책 및 인간공학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최종덕 기자)

